

연구논문

조선 정조 대 선천의 관직 진출과 그 위상

나영훈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조선후기사 전공

adolf3@naver.com

I. 머리말

II. 정조 대 무관의 관직 진출

III. 출신별 무관의 관료와 위상

IV. 남향천과 출신천의 가문적 위상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후기 무관, 특히 무과 급제 후 선천(宣薦)을 받은 관원은 관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조선시대 문관에 비해 무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관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선천에 대한 연구는 무관의 운영과 위상을 이해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행히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무관의 관직 진출과 선천의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무관 내에서 선천이 관직 진출의 핵심 엘리트 관료였다는 지적은 정조 대 정약용의 언급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정해은은 선천의 구체적 운영과 무과 청요직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선행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선천이 광해군 대 이후 제도로 확립되었으며 양반 가문의 문벌 출신 가운데 재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선전관청천안(宣傳官廳薦案)』을 분석함으로써 전체 무과 급제자 수에 대비하여 약 6.9%만이 선천이 되었던 만큼, 선천은 예비 엘리트 관료를 위한 통로였음을 밝혀냈다. 특히 선천 내에서 남향천(南行薦)과 출신천(出身薦)의 차이를 지적하고 군영대장 대부분이 남향천 출신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벌 가문들이 서반 청요직을 독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선천의 위상뿐 아니라 선천 내에서의 남향천과 출신천의 구분 등 선천에 대한 이해가 한층 심화되었다.¹ 다만 기존 연구는 선천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관직에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사업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4-CO8). 또한 ‘조선 후기 선전관의 관인적 지위와 사회적 배경’을 밝히는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했다. 여기서 각 연구자는 숙종 대와 영조 대, 정조 대의 각 시기별로 선천의 위상을 나누어 검토했다. 필자는 이 가운데 정조 대 선천의 위상을 주도적으로 살폈다.

1 정해은, 「조선후기 선천의 운영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현실』 39(2001), 127~160쪽.

진출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까지 해명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정해은은 1784년(정조 8) 책봉 경과(慶科)의 급제자 2,692명을 전수 분석했고, 이 중에 선천에 뽑힌 사람이 166명, 즉 6.2%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무과 급제자 중 극히 일부만이 선천에 오를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선천의 높은 위상을 재확인해 준 성과였다.² 정해은은 해당 연구에서 무과 급제를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며,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선천이 무과 급제자 내에서 가문이 좋은 엘리트를 선별하는 과정이었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한편, 정해은은 해주 정씨와 노상추 등 몇몇 인물의 실제 관직 생활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과 급제자 및 선천을 받은 무관의 관직 경로를 복구하기도 했다.³ 이러한 관직 경로에 대한 검토는 이 연구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특히, 노상추 사례를 통해 『승정원일기』가 무관의 관직 경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신뢰할 만한 자료임이 드러났다. 노상추가 일기에 기록한 관직 내용이 『승정원일기』 기록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선천의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천인(宣薦人)이 어떠한 관직에 진출했는지 또 그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지, 선천이 얼마나 높은 관직으로 오를 수 있었는지, 또한 선천 내에서 출신천과 남향천의 관직 진출에서의 차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선천과 비선천 무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에서의 차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2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의 진로에 나타난 차별의 문제: 1784년(정조 8) 책봉건과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8(2012), 39~64쪽.

3 정해은, 「조선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 《노상추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2008), 293~323쪽; 정해은, 「조선후기 무관 노상추의 중앙 관직 생활과 그 의미: 오위장과 금군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3(2019), 193~232쪽; 정해은, 『어느 경상도 양반가의 무관 진출기』(서울: 세창출판사, 2023).

지 등 무관 내에서의 선천의 구체적인 관직 진출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천과 무관들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천을 받은 무관들의 관직 진출 실태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선천 내 남향천과 출신천 사이의 차이까지 규명함으로써 선천의 관인적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II. 정조 대 무관의 관직 진출

정조 대 선천의 관로를 이해하기에 앞서, 정조 대 무관들의 관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선천과 무관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관로를 추출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느 정도로 승진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무관들의 관직 경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과를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무관들의 일반적인 관로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나 많은 관직이 있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를 토대로 무관들의 관직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⁴ 정해은은 노상추, 해주 정씨 등의 관직 생활을 토대로 이들의 관직 경로를 추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노상추는 ① 무과 급제, ② 선천, ③ 무신 겸 선전관을 거쳐서, ④ 진동 만호, ⑤ 훈련원 주부, ⑥ 절충장군(당상 승진), ⑦ 오위장, ⑧ 삭주부사, ⑨ 겸사복장, 우림위장, ⑩ 금위영 천총, ⑪ 홍주 영장, ⑫ 강화 중군, ⑬ 어영청 기사장, ⑭ 가덕 첨사, ⑮ 동지중추부사 등을 거쳐 갔다.⁵ 이와

4 최근 정해은은 무관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각 관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참고하여 선천들의 관직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 정해은, 『붓과 칼 사이의 질서: 조선의 무관 제도사』(서울: 역사산책, 2025).

5 정해은, 앞의 글(2019).

같은 관로는 무관으로서 노상추가 거쳐 간 관로이면서, 필자가 『승정원일기』를 통해 1,147명에 이르는 정조 대의 ‘선천인’의 관로를 모두 추적한 결과와도 매우 흡사했다.

필자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정조 대 선천의 관직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 결과 중복을 제외하고 모두 8,697개에 달하는 관직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분석하여 선천들이 제수되었던 관로에 특정한 경향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조 대 선천들이 걸었던 관로는 크게 ‘① 무관 참하관 → ② 무관참상관 → ③ 무관당상관 → ④ 수사 → ⑤ 병사 → ⑥ 대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⁶ 물론 이는 법제적 관직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닌 필자가 정조 대 선천인 1,147명의 관직 경로를 검토한 연구를 토대로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정조 대 선천인은 이러한 범주에서 관직에 제수되고 또 승진했다. 특히 중요한 구분점은 당상관 이후, 수사 즉 수군절도사가 되는 것이었고 수군절도사로 제수된 이들은 매우 한정적이면서도 이 급간에 오른 이후로는 특정한 관직만을 역임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 급간에 이르렀을 때 제수되는 관직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

〈표1〉과 같은 구분은 사실 『대전통편』과 같은 법전에서도 확인이 되는 관직이다. 다만 이를 통해 무관들이 서반직뿐 아니라 동반직에도 일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범주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무관들은 경직을 제수받는 경우 대부분 오군영의 초관, 파총, 천총 등 서반직에 제수되었다. 이 외에는 훈련원, 도총부, 중추부 3개 관서의 주부, 도사, 판관, 경력 등에 제수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했다. 외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권관, 만호, 첨사, 순영중군 등에 제수되었다. 이처럼 정조 대 무관들은 경외직을 통틀어 서반

6 참하관, 참상관, 당상관 앞에 ‘무관’을 붙인 것은 〈표1〉에서 보듯이 무관들의 참하, 참상, 당상의 관직이 문관들이 거치는 관직과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1-정조 대 선천의 역임 관직 일람

참하		참상		당상	
경직	외직	경직	외직	경직	외직
초관, 참군, 참봉, 부사용, 선전관	권관, 별장	정,좌통례, 부정,경력, 파총, 첨정정랑, 도사판관,령, 감찰,좌랑, 주부,부장, 부사과,별제, 인의	통우후, 병마우후, 수군우후, 군수,만호, 현령,판관, 현감,찰방, 첨사	내금위장, 검사복장, 우림위장, 국별장, 천총 오위장, 첨지,기사장, 사소위장, 총장위장, 총익위장, 기사별장	변지첨사, 부사, 영장, 목사, 순영중군, 방어사
수사		병사		대장	
경직	외직	경직	외직	경직	외직
기사별장, 승지	수사, 관성장	군영별장, 군영중군, 부총관, 금군별장	병사, 북병사, 남병사, 통제사, 통어사, 회령부사	포도대장, 총융사, 어영대장, 금위대장, 훈련대장, 좌윤,우윤, 참판,판서, 도총관	-

직에 제수되어 자기들의 관로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상추의 사례와 같은 관로 여정이 일반적으로 제수되는 관직이었던 것이다. 다만 각각의 급간마다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 검사복장 등 금군장에 제수되었던 노상추는 진영장이나 천총, 기사장, 중군, 첨사 등을 역임하며 당상관 이상의 무관으로 진출하는 전형적인 관직 경로를 경험했으나, 끝내 수사가 되지 못했다. 이는 그 이후의 관로에 오르는 여정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첨사나 부사는 당상관직은 아니었지만 절충장군에 오르지 못한 관료는 해당 관직에 제수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당상관에 올랐어도 수군절도사에 이르지 못한 관원은 기사별장이나 부총관, 군영의 별장이나 중군 등에 제수되지 못했다. 이처럼 대체로 무관들은 법전에서 정의된 관로를 따랐지만 각각의 단계마다 그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고 적체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표1>의 분류에 따라 정조 대 무관 1,147명을 분류해 각 급간에 오르는 관료들의 위상 차이를 확인했다.

출사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선천의 관로가 참하관에서 끝나는 사례는 7%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았다. 이로써 선천의 관로가 참상관 이상을 염두에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하관에서 관로가 끝나는 경우를 보면 초관이나 참군, 권관에서 더 이상의 승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질병이나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관로에 나가지 못한 경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사한 무관들의 다수는 ‘승륙’되어 수령에 나갈 수 있었다.⁷ 대다수 참상 무관들은 훈련원이나 도총부, 중추부에서 주부나 경력, 도사, 판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파총과 감찰에도 다수 제수되었다. 외직으로 나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는데, 이때는 군수나 현감, 현령, 만호 등에 제수되었으며, 또한 병마우후나 수군우후 등에도 다수 진출했다. 반면 참상관으로 부사나 첨사에 제수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⁸

7 승륙될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다. 참하승전 선전관의 경우 15개월이 지나면 도목정사를 기다리지 않고 승륙하게 되어 있으며, 각영의 선천을 받은 초관 역시 20개월이 지나면 승륙하게 했다. 또한 도목마다 기일이 찬 선전관은 차례로 승륙하게 했으며, 참하 선전관은 승서되면 승륙하게 했다. 이처럼 선천을 받은 선전관은 빠르게 승륙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해 두었다.

8 첨사의 경우는 당상관이 갈 수 있는 첨사와 당상이 아니어도 갈 수 있는 첨사가 있다. 비당상 첨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내외참상의 이력이나 만호, 별장을 거친 경우에만 제수될

참상관을 거쳐 절충장군에 제수되어 당상관이 된 무관들은 이후 더 다양한 관직에 제수되었다. 당상관에 올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수되는 경직(京職)은 위장(衛將)이었다. 오위장을 비롯하여 충장위장과 충익위장, 공궐(空闕)의 위장 등을 역임했다.⁹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금군장, 즉 우림위장, 검사복장, 내금위장에 제수될 수 있었다. 금군장을 거친 이들은 중앙에서 중앙군영의 천충에 제수되어 군무를 수행했다.¹⁰ 이들을 거친 이후에야 수사로써 진출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선천 무관들은 당상관에서 이력을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당상관에 머문 무관들은 외직으로는 변지첨사나 진영장, 순영의 중군, 부사나 목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변지의 첨사¹¹나 진영장,¹² 순영 중군¹³은 당상 무관 가운데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 준 자들에게 제수되는 관직이었다. 순영의 중군은 각 도의 감영에 포진되어 관찰사의 군사 업무를 보좌하는 제1의 참모였다. 또한 영장은 각 도의 핵심 지역을 방어하는 책임관으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변지첨사는 무장 가문의 자제를 차출하라는 별도의 조문이 있을 정도로 엄선했다. 해주 정씨 가문의 정지신이나 노상추의 경우가 이처럼 수사에 오르지 못한 당상 무관의 전형적인 관로를 경험

수 있었다. 비당상 첨사는 德積·注文·長串·平薪·所斤·文城·善績·登山·許沙·吾叉浦·蛇渡·臨淄·防踏·荏子島·古今島·彌助項·西生·龜山·碧園·昌洲·委曲·牛峴·古城·安義·西林·柔院·天摩·車嶺·恃寨·宣沙浦·老江·廣梁·潼關·柔遠·美錢·魚游澗·曳下·西北 등이다.

- 9 경북궁 위장, 경희궁 위장 등 공궐의 위장은 잡과 출신 당상관에게 제수한 관직이었다.
- 10 군영의 천충은 일찍이 변지첨사를 지내거나 내외장을 지낸 자로 차출했기 때문에, 당상관을 지낸 자로 의망하는 자리였다. 『兩銓便攷』 권2, 「西銓」, 軍營.
- 11 변지첨사는 일찍이 내외장을 거친 자로 의차한다. 북도의 변지첨사는 반드시 훈련원 정을 지냈거나, 장가의 자제로 차출한다.
- 12 각 진영장은 반드시 일찍이 수령을 지낸 자로 의차한다. 『兩銓便攷』 권2, 「西銓」, 外職.
- 13 각 도의 중군은 일찍이 오위장을 지낸 자로 의차한다(『兩銓便攷』 권2, 「西銓」, 外職). 즉, 당상관을 제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했던 것이다.

한편, 당상관에 오른 다수의 인물 가운데 선택된 소수만이 수군절도사에 제수되었고,¹⁴ 이를 거쳐 병마절도사에 이를 수 있었다. 수군절도사에 오르는 이들은 영종첨사나 목사에 제수된 이후 황해도나 충청도, 전라 좌우도, 경상 좌도 등 다섯 곳의 수사에 오를 수 있었다. 경기수사는 병마절도사까지 경험한 관원만이 갈 수 있었다. 수사를 거친 이들만이 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¹⁵ 병마절도사에 제수된 이들은 경직(京職)으로 제수될 경우 각 군영의 별장이나 중군, 금군별장에 오를 수 있었다.¹⁶ 병마절도사도 처음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등에 제수되었고 이를 거쳐 함경도의 북병사나 남병사에 제수될 수 있었으며,¹⁷ 이어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장까지 오르는 구간이 있다. 병마절도사를 거친 무관 가운데 문벌이 높으면서, 뛰어난 이들은 포도대장을 시작으로 대장직을 경험했는데 최종적으로 오르는 관직은 오군영의 대장이었다. 총융사, 어영대장, 금위대장, 훈련대장 등 4개 대장에 무관들이 제수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단 1명 류상량(柳相亮)만이 형조판서에 제수되면서 동반직(東班職)을 경험했다.

이를 토대로, 정조 대 1,147명의 최고 관직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
- 14 제도의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영종 방어사를 거쳐야 했고, 영종 방어사는 변지첨사로 일컬어지는 鐵島·白翎·椒島·靑山島·釜山·多大·東津·阿耳·蘄島·滿浦·神光·高山里·惠山·高嶺·訓戎·城津 등의 첨사를 거쳐야 했다. 이들 변지첨사는 또한 내외장을 거친 자로 제수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이후에야 수사가 될 수 있었다. 특히 북도의 변지는 반드시 일찍이 훈련원 정이나 將家の 자제를 보내게 되어 있어서, 가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兩銓便攷』 권2, 「西銓」, 外職.
- 15 삼남병사(경상좌우도, 충청, 전라도)는 일찍이 수사를 거친 자로 갖추어 의망한다. 『兩銓便攷』 권2, 「西銓」, 外職
- 16 포도대장을 가기 위해서는 훈련도감 중군을 거쳐야 했고, 훈련도감 중군을 가기 위해서는 각영의 중군을 거쳐야 했으며, 각영의 중군이 되기 위해서는 가선대부에 올라야 했다. 또한 기사별장이 되기 위해서는 병사와 수사를 거쳐야 했다. 『兩銓便攷』 권2, 「序典」, 軍營.
- 17 『兩銓便攷』 권2, 「西銓」, 外職.

표2-정조 대 선천의 최고 관직

(단위: 명)

구분	대장	병사	수사	당상	소계	참상	참하	미출사	총합계
명수	16	65	33	363	477	252	81	337	1,147
평균	1.39	5.67	2.88	31.65	41.59	21.97	7.06	29.38	100

전체 1,147명 가운데 관직 진출이 확인된 이들, 즉 출사한 인원은 모두 810명, 70.6%였으며, 선천의 30% 정도는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관직을 받은 이들 가운데 477명, 즉 출사한 사람의 58.9%, 전체 선천의 41.6%는 당상관에 진출했다. 전체 선천의 40%가 넘게 당상관에 진출한 것은 단순 비교로 보면 조선의 엘리트였던 문과 급제자의 34%보다 높은 비중이었다.¹⁸ 물론 각각의 역할이 달랐고 역임한 관직의 성격도 달랐기 때문에 이것으로 선천의 비교 우위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선천들이 다수 당상관에 진출한 것은 이전의 연구 결과와 같이, 선천들이 무관 사이에서 엘리트 관원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천들도 수군절도사 이상의 관직을 역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전체 114명만이 수군절도사 이상의 관직에 올랐는데 이는 전체 선천의 9.9%에 지나지 않았다. 즉, 선천의 10%만이 절도사 이상의 관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또한 군영대장이 된 것은 단 16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선천의 1.4%라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무관들의 선망 대상이었던 절도사 자리가 선천 내에서도 약 10%의 소수만이 도달한 아주 중요한 직위이자 하나의 분기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조 대 선천인들의 관직 경로가 다른 무과 급제자와 어

18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43(2007), 5~50쪽.

떻게 다른지, 또한 선천인 내 남향과 출신의 관직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관인적 위상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Ⅲ. 출신별 무관의 관로와 위상

1. 선천과 비선천의 관직 경로: 무과 급제자를 중심으로

정해은은 1784년 경과 분석을 통해 2,692명에 이르는 무과 급제자의 진로와 차별 대우에 대해 확인했다. 또한 무관들의 관직 진출에서 선천의 여부가 매우 중요했으며, 이로써 관직 진출이 사족 출신에게 유리했던 정황을 제기했다. 다만 정해은은 분석 대상이 너무 많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들의 진로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못했다고 한계점을 제시했다.¹⁹ 이들 무과 급제자 가운데 선천과 비선천의 관로 진출에서의 차이점이 여전히 명료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선천의 무관 내에서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천에 오르지 못한 다수의 무과 급제자들과 비교하여 이 두 집단 사이에 관로의 차이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천에 오를 확률 자체가 매우 희박했고 진출 자체가 특혜이자 혜택이었으므로 선천과 비선천의 차이는 분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조 때에는 41회 무과에서 1만 304명의 급제자를 배출했다. 즉, 전체 무과 급제자의 11%, 1,147명이 선천에 오를 수 있었다. 1만 명이 넘는 정조 대 무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조 대

19 정해은, 앞의 글(2012).

표3-1783년 무과에서 선천과 비선천의 관직 진출 비교

(단위: 명, %)

구분	비선천	비율	선천	비율	총 합계
병사	-	0.0	4	19.0	4
수사	-	0.0	3	14.2	3
당상	7	5.6	7	33.3	14
당상 이상	7	5.6	14	66.7	21
참상	27	21.6	6	30.0	33
참하	32	25.6	-	0.0	32
관직 진출(당상 포함)	66	52.8	20	95.2	86
무	59	47.2	1	4.8	60
총 합계	125	-	21	-	146

무과 가운데 방목이 남아 있는 1783년(정조 7)의 무과를 사례로 분석했다. 당시 무과에는 모두 146명의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0명, 13.7%가 선천에 선정되었다. 여기서는 1783년 무과에서 선천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비선천의 관로를 추적해 보았다.

1783년 무과급제자의 선천 비중은 평균 11%보다 다소 높은 14.3%(146명 중 21명)였다. <표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천과 비선천의 관직 진출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관직 진출 비중만 보더라도 선천인은 21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20명, 95.2%가 관직에 올랐다. 반면 비선천 무과 급제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66명, 52.8%만 관직에 진출한 것이 확인되며 59명, 47.2%는 관직 진출이 확인되지 않는다.

당상관 이상의 진출 역시도 비선천의 경우 단 7명, 5.6%만이 당상관이 되었던 반면, 선천은 14명, 66.7%가 당상관에 진출했다. 즉, 같은 무과 급제자라 하더라도 선천을 받은 것과 받지 못한 이들의 관로 진출에서의 차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물론, 1783년 급제자의 선천인들은 정조 대 평균적인 선천

인의 관직 진출이나 당상관 진출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선천과 비선천의 차이가 명확한 것은 알 수 있다.

비선천인 경우는 당상관에 오르더라도 수군절도사 이상으로 올라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당상관에 오른 7명은 대부분 경복궁이나 경희궁의 위장, 오위장 등에 그친 경우이며 이들은 외관조차 경험하기 힘들었다. 외관에 진출한 것은 오위장을 마치고 정의현감이 된 김계중(金繼重), 금위영의 기사장을 거쳐 횡성과 운봉현감, 대구영장 등을 거친 권억(權抑)만이 확인된다.

한편 관직에 진출한 선천과 비선천의 변장 진출을 보면 권관, 만호, 첨사 등이 확인된다. 이들이 파견된 지역에서도 선천과 비선천의 차이가 있다. 비선천에게 확인되는 권관은 황척파, 광평이며 만호는 명월, 서평포, 안골, 산양회, 제물, 문산, 옥강, 구녕, 풍산, 방산, 위도, 용진, 이포, 조산, 장봉, 모령이며, 첨사는 고성, 시채, 마량, 유원이었다.²⁰ 이들 자리는 대부분 구군첨사, 구군만호, 구군권관이 가는 자리이다. 이는 변지첨사나 이력첨사, 혹은 체부만호, 체부권관과 같이 각 변장에서 요직에 해당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반면, 선천들은 첨사로써는 혜산, 영종, 상토, 범성, 아이, 신광, 만포, 부산 등에 자주 제수되며,²¹ 만호로는 종포, 평남, 윗괴, 운충, 어면, 인차외 등에 제수되었다.²² 권관으로는 마마해, 소농포, 동인, 강구, 자작 등에 제수되었다. 이

20 비선천에게 허용된 첨사, 만호, 권관은 모두 구군첨사, 구군만호, 구군권관 등 각 변장 가운데에도 요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고성, 시채, 마량, 유원은 모두 구군첨사가 가는 자리이다. 권관과 만호 자리 역시도 모두 구군의 자리였다. 정해은, 앞의 책(2025), 425쪽, 455쪽, 472쪽의 도표 참조.

21 선천들이 가는 첨사진은 대부분 변지나 이력첨사이다. 신광첨사만 유일하게 구군첨사로 되어 있다. 이는 첨사에서도 변지와 이력이 중요한 첨사였기 때문에 선천들이 진출하는 것이다. 위의 책.

22 만호 역시도 체부만호가 구군만호에 비해 중요한 자리였다. 선천들은 대부분 체부만호로 갔는데, 평남 만호를 제외한 종포, 운충, 어면, 인차외가 체부만호였다. 위의 책, 455쪽.

들은 대부분 변지첨사나 이력첨사, 혹은 체부만호나 체부권관에 해당했다. 이들 자리로 비선천이 제수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다.²³ 즉, 선천과 비선천은 같은 권관, 만호, 첨사에 제수되더라도 요직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철저한 차이를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선천 무과 급제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제수되는 관직은 오군영의 초관이었는데, 대부분 초관에서 관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무과 급제자가 선천에 들지 못한 경우, 대부분 참하 군관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차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비선천 무과 급제자와 선천 무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커서 상대적으로 선천이 차지하는 관인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2. 남향천과 출신천의 관직 경로

이제 본격적으로, 선천 내에서 남향천과 출신천 사이의 관료와 이들의 위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 역시 기존 연구에서 남향천의 우세를 지적한 바 있다.²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향천과 출신천 사이의 관료상의 차이나 특징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필자는 『선전관청천안』의 정조 대 선천 1,147명의 관료를 『승정원일기』를 통해 추출했고, 그 결과 이들의 최고 관직과 각 관직 급간을 설정했다. 이러한 기준은 앞서 제시했다. 이렇게 추출한 선천의 최고 관직을 남향천과 출신천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남향천과 출신천의 관직 진출 비중이다.

23 권관 역시도 체부권관과 구군권관이 있는데 역시 체부권관이 요직이다. 선천들이 배치된 권관은 모두 체부권관 자리였다. 위의 책, 472쪽.

24 정해은, 앞의 글(2001).

표4-정조 대 선천의 최고 관직 비교

(단위: 명, %)

구분	남향천	비중	출신천	비중	미상	총 합계	비중
대장	14	3.0	-	0.0	1	15	1.3
병사	48	10.2	17	2.5	-	65	5.7
수사	21	4.4	12	1.8	-	33	2.9
수사 이상	83	17.6	29	4.3	-	113	9.9
당상관	118	25.0	241	36.0	2	361	31.5
당상 이상	201	42.6	270	40.3	2	474	41.3
참상관	59	12.5	192	28.7	1	252	22.0
참하관	32	6.8	49	7.3	-	81	7.1
관직 진출	292	61.9	511	76.3	3	807	70.4
미출사	180	38.1	159	23.7	1	340	29.6
총 합계	472	-	670	-	5	1,147	-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남향천보다 출신천의 관직 진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출신천은 670명 가운데 511명(76.3%)이 관직에 진출했으며, 159명(23.7%)은 관직 진출과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남향천은 472명 가운데 292명(61.9%)만이 관직에 진출했으며, 180명(38.1%)은 관직 진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출신천이 관직 진출에 상대적으로 성공했음을 보여 준다. 남향천의 경우, 60% 정도만이 관직 진출에 성공했으며 40% 가까이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남향천의 경우 출신 집안에 의해 차출되었지만 결국에는 무예 실력이 담보되어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IV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²⁵

25 남향천인데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좋은 집안 출신으로 남향은 받았지만 결국 활쏘기 등 무인의 기본 역량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IV장 남향천의 무과 급제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남향천들은 무과 급제율 역시 현저히 떨어졌다.

그런데 관직에 진출한 이후 둘의 차이는 역전된다. 우선 당상관 이상으로의 진출을 보면, 남향천이 472명 가운데 201명(42.6%)이 당상관으로 진출했으며, 출신천은 670명 가운데 270명(40.3%)이 당상관에 진출했다. 남향천이 소폭 우위에 있지만 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관직에 진출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남향천은 292명 가운데 201명, 즉 68.8%가 당상관이 되었으며, 출신천은 511명 가운데 270명, 52.8%만이 당상관이 되었다. 이는 관직에 진출하기만 한다면 남향천이 당상관 진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수군절도사 이상으로의 진출을 확인하면 그 차이가 더욱 크다. 남향천은 83명, 전체의 17.6%, 관직 진출자의 28.4%가 수군절도사에 진출했다. 반면, 출신천은 29명, 4.3%, 관직 진출자의 5.6%만이 수군절도사에 올라갈 수 있었다. 즉, 수군절도사 이상으로의 진출에서 남향천의 비교 우위가 더 커진다. 또한 군영대장 이상으로 진출한 이는 모두 15명이었는데,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을 제외하면 대장은 모두 남향천 사람만 되었다. 대장 이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은이 밝힌 바 있듯이, 군영대장 72명 가운데 남향천이 53명, 출신천이 7명이었고, 이를 통해 남향천의 비교 우위를 확인한 바 있다. 출신천도 수사나 병사, 대장에 제수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향천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백하다. 이는 남향천이 선천 내에서도 고위직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관로였음을 알려 준다.

다만, 출신천 역시도 당상관 이상으로 진출하는 비중은 남향천 못지않았던 만큼, 출신천과 남향천을 포함해 선천은 무관들이 당상관 이상의 관직에 진출하게 해 주는 관로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선천은 무관 당상관 이상의 관로를 위해 선별한 자원이며, 이 가운데 남향천은 수군절도사 이상의 고위 무관으로 가는 선별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천의 관직 진출의 차이는 정조 시기에도 시기의 변화에 따라 조

표5-1787년 전후의 관직 진출 비교

(단위: 명, %)

구분	남향천	비중	출신천	비중	총 합계	비중
대장	8	6.3	-	0.0	8	1.6
병사	14	11.1	12	3.3	26	5.3
수사	12	9.5	10	2.7	22	4.5
수사 이상	34	27.0	22	6.0	56	11.4
당상	40	31.7	132	36.1	173	35.1
당상 이상	74	58.7	154	42.1	229	46.5
참상	14	11.1	111	30.3	125	25.4
참하	6	4.8	19	5.2	25	5.1
관직 진출	94	74.6	284	77.6	379	76.9
미출사	32	25.4	82	22.4	114	23.1
1786년 이전	126	-	366	-	493	-
대장	6	1.7		0.0	6	0.9
병사	34	9.8	5	1.6	39	6.0
수사	9	2.6	2	0.7	11	1.7
수사 이상	49	14.2	7	2.3	56	8.6
당상	78	22.5	109	35.9	187	28.8
당상 이상	127	36.7	116	38.2	243	37.4
참상	45	13.0	81	26.6	126	19.4
참하	26	7.5	30	9.9	56	8.6
관직 진출	198	57.2	227	74.7	425	65.4
미출사	148	42.8	77	25.3	225	34.6
1786년 이후	346	-	304	-	650	-
총 합계	472	-	670	-	1,142	-

금씩 있었음이 확인된다. 필자는 정조 대 남향천의 수가 출신천보다 증가하기 시작한 1786년을 기점으로 구분해 파악했다. 정조 대는 평균적으로 남향천이 출신천에 비해 적었는데, 1787년부터 남향천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다. 1777년부터 1786년까지는 남향천과 출신천의 비율은 각 25%(126명)과 75%(366명)으로, 출신천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1787년은 처음으로 남향천이 출신천보다 많이 뽑혔던 시기이고 이후 남향천과 출신천의 비중은 각 53%(346명)과 47%(304명)으로, 남향천이 출신천에 비해 소폭이지만 더 많아졌다.

1787년 남향천이 더 많아진 이후, 남향천과 출신천의 관직 진출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다. 우선, 선천의 관직 진출이 전체적으로 변화했다. 1787년 이전 시기에는 76.9%가 관직에 진출했지만 이후로는 65.4%만이 관직에 진출했고 당상관 진출(46.5% → 37.4%), 수사 진출(11.4% → 8.6%)과 같은 고위직으로의 관직 승진까지도 감소했다. 그리고 이는 남향천과 출신천 사이에 더 큰 변화를 보였다.

우선 남향천은 관직 진출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전까지 74.6%로 출신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관직 진출률이 57.2%로 급감했다. 반면 출신천은 시기와 상관없이 유사한 관직 진출률을 보였다. 관직 승진 비율도 떨어졌는데, 당상 이상은 58.7% → 36.7%로, 수사 이상은 27% → 14.2%로 모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물론 이는 관직 진출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이를 제외해도 역시 남향천의 승진율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여전히 남향천이 출신천에 비해 수사 이상의 진출률은 높았다.

이처럼, 남향천의 관직 진출 비중이 감소한 것은 1784년과 1785년에 많은 무과 급제자를 배출한 이후 선천 자체가 증가했고 여기에 출신천은 관직 진출 비중이 여전히 유지되었던 것과도 유관하다. 관직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천이 증가했기 때문에 선천의 관직 진출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당시의 정국 동향과 관련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1784년 무과 급제자 수의 증가로 인해 관직 대상자가 많아져 결국, 선

표6-서울과 지방 거주자의 관직 진출 비교

(단위: 명, %)

구분	남향천	비중	출신천	비중	총합계	비중
대장	12	3.6	-	0.0	13	2.3
병사	43	12.7	12	5.5	55	9.8
수사	14	4.1	10	4.5	24	4.3
수사 이상	69	20.4	22	10.0	92	16.3
당상	88	26.0	90	40.9	180	32.0
당상 이상	157	46.4	112	50.9	272	48.3
참상	44	13.0	59	26.8	104	18.5
참하	24	7.1	15	6.8	39	6.9
관직 진출	225	66.6	186	84.5	415	73.7
미출사	113	33.4	34	15.5	148	26.3
서울	338	60.6	220	39.4	558	-
대장	1	0.8	-	0.0	1	0.2
병사	5	3.8	5	1.1	10	1.7
수사	7	5.3	2	0.4	9	1.6
수사 이상	13	9.8	7	1.6	20	3.5
당상	30	22.7	150	33.6	180	31.1
당상 이상	43	32.6	157	35.2	200	34.6
참상	15	11.4	132	29.6	147	25.4
참하	8	6.1	33	7.4	41	7.1
관직 진출	66	50.0	322	72.2	388	67.1
미출사	66	50.0	124	27.8	190	32.9
지방	132	22.8	446	77.2	578	-
총합계	470	-	666	-	1,136	-

천의 위상 자체가 변화하거나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천은 여전히 무관 내에서 중요한 관료였고, 남향천이 출신천에 비해 중요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남향천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관직 진출이 전에 없이 감소한

것은 남향천 자체의 위상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자. 우선 선천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검토했다. 그 결과 출신천에 비해 남향천의 서울 출신 비중이 높았던 것을 확인했다. 영조에서 철종까지 남향천의 84.9%가 서울 출신으로 집중되어 있던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출신천의 38.4%만이 서울 출신이어서, 남향천이 출신천에 비해 서울 거주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필자 역시 정조 대 선천의 거주지를 통해 출신 지역을 확인했고 여기에 이들의 관직 진출 정도를 더하여 검토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선천의 비중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전체 1,13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558명(49.1%), 지방 출신은 578명(50.9%)이었다. 남향천 470명 가운데는 서울 출신이 338명(71.9%), 지방 출신이 132명(28.8%)으로, 남향천의 서울 출신이 더 많았다. 출신천 660명 가운데에는 서울 출신이 220명(33.3%), 지방 출신이 446명(66.9%)으로 출신천은 지방 출신이 많았다. 한편, 서울 출신 558명 가운데 남향천이 338명(60.6%), 출신천이 220명(39.4%)으로, 남향천이 2/3가량 된다. 지방 출신 578명 가운데 남향천은 132명(22.8%), 출신천은 446명(77.2%)로 출신천이 더 많았다.

서울 출신은 지방 출신에 비해 관직 진출에서도 다소 유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출신의 73.7%가 관직 진출에 성공한 반면, 지방 출신은 67.1%가 관직 진출에 성공했다. 이 비율은 서울 출신이 약간 높은 정도이지만, 고위직 승진을 보면 더 차이가 난다. 서울 출신은 당상 진출이 48.3%로, 지방 출신의 당상 진출 34.6%에 비하면 14%나 높았다. 또한 수사 이상으로의 진출 역시 서울 출신은 92명, 16.3%였으며, 지방 출신은 20명, 3.5%에 불과했다. 즉, 서울 출신이 관직 진출부터 승진까지 모든 면에서 우세했던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이를 남향천과 출신천으로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서울 출신 남향천 338명 가운데 66.6%가 관직 진출에 성공했고, 당상 이상 진출 역시 46.4%였는데, 수사 이상의 고위직으로는 20.4%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이는 같은 서울 출신의 출신천이 10%만이, 같은 남향천의 지방 출신이 9.8%만이 수사 이상으로 나간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서, 서울 출신의 남향천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에 유리한 것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지방 출신의 남향천은 50%만이 관직 진출에 성공했고, 32.6%만이 당상 이상으로 승진한 것에 비해, 서울 출신의 출신천은 84.5%나 관직 진출에 성공했으며 50.9%가 당상 이상으로 승진하는 비중을 보여 줌으로써 두 그룹간의 명백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로 보아, 남향천이어도 지방 출신인 경우는 관직 진출과 당상 이상 승진 모두 서울 출신의 출신천보다 낮았던 것으로서, 서울 거주가 관직 진출에 보다 유리했음을 알려 준다. 물론, 두 그룹의 수사 이상 고위직의 비율이 10%로 유사한 것은, 일단 관직에 진출했다면 남향천의 경우가 수사 이상으로 나가는 데 훨씬 유리했음도 알려 준다.

지방 출신의 출신천은 승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듯이, 단 7명, 1.6%만이 수사 이상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들이 수사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서울 출신 남향천이 69명, 20.4%나 수사 이상으로 올랐던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확률로 고위 무관에 진출했음을 알려 준다. 대장직의 진출 역시도 서울 출신의 남향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 출신은 단 1명, 그것도 남향천에서 대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는 근기 지역의 경기 고양에 거주했던 장현택(張鉉宅)이었다. 장현택은 인동 장씨로, 증조는 훈련대장 장봉익, 조부는 통제사 장태소, 부친은 병사 장지풍이며, 대대로 현달한 무반 별열 가문의 인사였다.

즉, 선천의 관직 진출에서 출신천과 남향천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

표7-지방 출신 선천의 세부 지역별 관직 진출

(단위: 명, %)

구분	충청	경기	경상	유수부	전라	강원	황해	평안	합계	비중
대장	-	1	-	-	-	-	-	-	1	0.2
병사	1	7	1	-	-	1	-	-	10	1.7
수사	5	1	-	1	-	2	-	-	9	1.6
수사 이상	6	9	1	1	-	3	-	-	20	3.5
당상	48	45	42	22	13	6	4	-	180	31.1
당상 이상	54	54	43	23	13	9	4	-	200	34.6
참상	37	38	27	18	17	7	3	-	147	25.4
참하	12	3	12	5	4	4	1	-	41	7.1
관직 진출	103	95	82	46	34	20	8	-	388	67.1
미출사	64	46	28	18	14	11	8	1	190	32.9
총합계	167	141	110	64	48	31	16	1	578	-
비율	28.9	24.4	19.0	11.1	8.3	5.4	2.8	0.2	-	-

깨 거주지역 역시도 관직 진출에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여러 지표를 통해 서울 출신의 관직 진출이 지방보다는 우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출신 가운데 충청도(28.9%)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기도(24.4%), 경상도(19%), 유수부(11.1%), 전라도(8.3%), 강원도(5.4%), 황해도(2.8%) 순이었다. 평안도는 단 1명이며, 함경도는 없었다. 이는 철종 대 서북인에 대한 선천의 금지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을 알려 준다. 평안도 의주 출신 최성봉(崔性鵬)은 남향천을 받았지만 관직에 진출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앞서 살폈듯이, 지방 출신으로 수사 이상에 오른 경우는 20명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충청도와 경기도에 몰려 있었다. 경상도 출신으로는 선산 사람 권응호(權膺祐), 강원도 원주 사람 박우연(朴友淵)과 원영린(元永麟), 철원 사람 김택기(金宅基)인데, 지방 출신으로 수군절도사 이상에 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수사 이상으로 아무도 올리지 못한 전라도와 황해도, 그리고 선천 배출에 비해 단 1명의 병사만을 배출한 경상도는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만큼 무관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역 출신에서도 경기도와 충청도 등 기호지역에 속한 인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선천은 물론 관직 진출에서도 우세했던 것이다.

즉, 남향천의 경우 서울 출신의 좋은 집안에서 무과 급제 이전에 음관으로 ‘남향’을 받아 기회를 얻었다가 무과 급제 혹은 취재를 통해 무관에 나아갈 수 있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무재가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은 경우 아예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출신천 인재들에 비해 관직 진출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단 무재를 인정받아 무관으로 입사하기만 하면, 거의 70%가 당상관에 오를 수 있었고 30%가 절도사가 될 수 있었다. 이는 관직 진출자의 50%가량만 당상관이 되며, 단 5%만이 절도사가 되었던 출신천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정조 대 선천 가운데 대장이 된 것은 모두 남향천 출신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남향천과 출신천은 같은 선천이지만 관직 진로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IV. 남향천과 출신천의 가문적 위상

선행연구에서 선천 내에서 남향천과 출신천 사이에 위상 차이가 있었고 이는 대장을 역임한 인원이 남향천에서 압도적이었던 것을 근거로 출신천보다 남향천이 더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이미 소개했다.²⁶ 다만 구체적으로 남향천과 출신천 사이의 관계, 그들 위상의 차이나 가격(家格)의 차이 등

26 정해은, 앞의 글(2001).

구체적 실상에 대해 검토하지는 못했다. 필자는 앞서 남향천과 출신천의 관직 진출 차이를 통해 남향천이 출신천보다 관직에 오를 경우 더 높은 관직으로 올랐던 점을 실증했다. 다만, 남향천은 출신천에 비해 관직 진출 자체를 하지 못했음도 지적했다. 일찍이 남향천과 출신천의 차이, 그리고 이들의 가문 내력에 대해서는 1742년(영조 18) 병조판서 박문수의 언급에서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박문수는 무인의 집안 중 권세 있는 사람의 자제는 키가 작고 역량이 다소 부족해도 관직에 쉽게 오른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족들의 관직 획득 방식은 문과 급제가 가장 유력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바로 무과를 보기보다는 남향[南行]이 되기를 우선한 다음에, 남향이 될 수 없는 자가 무과에 응시한다고 했다. 이들의 역량이 조금 떨어져도 어느 정도 활을 쏠 수 있거나 강경(講經)을 통과하면 권세를 의지하여 좋은 벼슬로 올라가고 있음을 지적했다.²⁷

즉, 무과보다는 남향이 더 중요하며, 남향으로 우선 진출한 다음에 무과에 응시하여 관직을 빠르고 높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정조대 선천들의 관직 진출 양상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강경에 통과하고 육량전을 잘 쏘아야지만 무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직에 아예 진출하지 못하는 남향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과 급제자는 기본 역량이 검증된 이들이기에 출신천이 남향천보다 관직 진출 자체는 유리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권세가 좋은 집안은 남향이었고, 또 남향이 관직에 진출한 이후의 승진도 훨씬 높았던 것은 앞서 확인한 바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이들의 가문을 확인하기 위해, 『무보』를 검토함으로써 그 가격(家格)을 살폈다. 주지하듯이 『무보』는 남설된 무과급제자 내에서 권세 있는 집안

27 『英祖實錄』 18년(1741) 8월 11일.

의 자제들이 다른 이들과 차별화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다.²⁸ 즉, 『무보』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라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별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선천을 남향천과 출신천으로 나누어 이들의 『무보』 등재 여부를 확인했다. 모두 검토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우선 당상관 이상에 진출한 각 50명의 남향과 출신, 그리고 관직에 아예 오르지 못한 각 50명의 남향과 출신을 대상으로 이들의 『무보』 등재 여부를 검토했다. 또한 참고를 위해 병마절도사 65인 역시도 검토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남향천 100명 가운데 『무보』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16명이고, 이들은 전원 당상관 이상으로 오른 인물임을 확인했다. 즉, 남향천 당상 진출자의 최소 32%(16명)가 무반 별열로 볼 수 있다. 반면 출신천 당상 진출자의 최소 14%(7명)도 『무보』에서 확인된다. 즉, 두 배 이상 남향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100명의 선천은 남향천과 출신천을 막론하고 누구도 『무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병마절도사 65명 가운데, 남향과 출신을 막론하고 56.9%(37명)가 『무보』에서 확인되며, 이 가운데 남향천은 26명(40%), 출신천은 11명(17%)이었다. 남향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남향과 출신을 막론하고 병마절도사까지 오른 선천은 다수가 무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남향천의 『무보』 등재율은 28%, 출신천의 등재율은 15%로 남향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향과 출신을 막론하고 관직에 높게 올라간 이들이 『무보』 등재율이 높다는 것은 『무보』에 등록된 집안 배경이 관직을 올리는 데도 중요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박문수의 지적과 같이, 남향에 올랐다고 모두가 관직에 제수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출신천보다 남향천의 관직 진출률

28 장필기, 「무보에 대한 자료적 검토」, 『조선후기 무반별족가문 연구』(파주: 집문당, 2005).

은 떨어지고 있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왔던 것일까? 이는 남향천이 최소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무과에 급제하지 않는다면 무관이 될 수 없었던 당대 상황을 추정하게 한다. 이에 따라, 남향천의 무과급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이들의 위상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남향천이 무과에 오르지 않는다면 관직을 받기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과 급제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다만, 『무과방목』은 현존하는 것이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천의 무과 급제 여부를 모두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²⁹

필자는 앞선 방식으로, 층위가 다른 남향천 148명[병사(48명)-당상관(50명)-미출사자(50명)], 출신천 117명 등 전체 265명의 방목 등재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 출신천의 경우는 117명이었는데, 당연히 모두가 무과에 급제했음에도 방목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25.8%(30명)에 불과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남향천의 무과 급제 여부 역시 확인해 보았다. 여기서는 148명의 남향천을 검토했는데, 이들 가운데 36.5%(54명)가 무과에 급제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병사 이상에서는 58.3%(28명), 당상관 역시도 48%(24명)가 확인되었다. 즉, 확인되는 것만 절반 이상이 무과에 합격했던 것이다. 반면, 미출사한 남향천의 경우에는 단 4%(2명)만이 무과 급제가 확인되었다. 동일한 방목 정보를 토대로 검토한 것이므로, 관직 진출자와 미출사자 사이에 이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남향천을 받았어도 무과에 급제하지 않았다면 관직에 오르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남향천을 받은 이후 무과에 급제해서 최소한의 무재(武才)를 선보여야 무관에 제수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즉, 미출사된 남향천의 경우에는 『무보』에도 오르지

29 정해은,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 무과 급제자 16,643명의 분석 보고서』(서울: 역사산책, 2020).

못한 데다가 무과에도 급제하지 못했다. 이는 실력 역시도 뒤떨어졌기 때문에, 관직에 제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무보』에 없다는 이유로 집안이 뒤떨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무보』에 오른 것 자체가 음관으로서 출사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출사된 남향천은 당연히 『무보』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이들의 가문적 배경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미있는 수치는 당상관 이상에서 『무보』에 등재된 이들의 비교이다.

물론 남향천이 출신천에 비해, 관직 승진에서 대단히 유리했다. 또한 이로 인해 권세 있는 집안에서는 바로 무과에 응시하기보다는 남향을 이용해 우선 천거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무과 급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무과에 급제한 남향선천은 가문적 배경을 토대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적 특권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군문대장보다 좀 더 폭넓은 분석을 위해 이 역시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수사와 병사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군절도사 이상에 오르는 경우는 그 자체로 선천의 10%도 안 되는 고위 관직자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별열 집안의 자손들이었다. 우선, 신평은 충용사인 신대점을 부친으로 둔 평산 신씨 별열가의 자손이었다.³⁰ 이신경은 전주 이씨로, 그 아들 이명철이었다. 김노갑,³¹ 오문상, 김병철, 조기는 병마절도사의 부친을 두었다. 권탁, 이충운, 이유상, 이존경은 수군절도사의 부친을 두었다. 박웅호는 밀양 박씨로 박천건의 아들인데, 조부 박춘보가 대사간을 지낸 선산의 유력한 인사였다. 거주지가 서울로 나오지만 대대로 선산에 거주했다.³² 안광찬은 죽산 안씨로 양주목사와 함경도 남병사를 지낸 안종규의 손자이다. 대대로 무반 별열 가계로 확인된다. 또한 장인인 이유경은 포도대장을 지낸 인물이다. 증조 안윤

30 『崇禎三庚申慶科庭試別試文武科殿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6024-60).

31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金魯甲.

32 『王世子冊封慶龍虎榜』(국립중앙도서관, 古朝26-28-65).

복도 병마절도사, 4대조 안적도 수군절도사를 지낸 가계의 인물이다.³³ 이근식은 전의 이씨로, 부친 이윤우가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고 장인인 심녕이 병마절도사를 지낸 무반 집안이다.³⁴ 심한영은 청송 심씨로 부친 심위진이 선전관이었다. 무보에 등재되었는데, 증조 심상리가 첨지중추부사, 4대조 심진이 충민공 병마절도사였다.³⁵ 윤명검은 함안 윤씨로, 조부가 수군절도사를 지낸 윤병연이며, 증조는 무과 출신으로 한성좌윤을 지낸 윤택정이다. 대대로 무과를 지낸 명가로 자리했다.³⁶ 『무보』에 실려 있는 이상일은 전주 이씨로, 부친 이항원이 무검이며, 조부 이경철은 통제사, 증조 이두천 역시 수군절도사를 지냈다. 대대로 무관을 역임했는데 덕천군의 12세손으로 무반 별열 집안이었다.³⁷ 조문석은 평양 조씨로, 부친은 조린이다. 증조부 조동점은 어영대장을 지냈고, 종증조부 조빈은 통제사를 지낸 대대로 무반 별열 가계를 이루고 있다.³⁸ 민석은 여흥민씨로, 조부 민수가 변지첨사를 지냈으며, 대대로 교관을 지낸 집안이다. 8대조 민준(閔濬)이 병조참관을 지냈다.³⁹ 이희장은 농서 이씨로, 명장군 이여송의 후손이다. 즉, 황조인이다. 부친 이효승은 수군절도사, 조부 이원은 병마절도사를 지낸 대대로 무반 명가를 이루었다.⁴⁰ 박종주는 밀양 박씨로, 이조판서를 지낸 박충원의 7대손 후손이다. 『무보』에서 확인되지만 4조 이내의 현관을 지낸 조상은 확인할 수 없다.⁴¹ 백홍진은 수원 백씨로, 부친 백동언이 대장을, 조부 백사검 역시 대장을 지낸 명가이다. 평

33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安光贊.

34 장필기, 앞의 책(2005).

35 『武譜』下(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1742), 沈漢永.

36 『武譜』下(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1742), 尹明儉.

37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李商一.

38 『崇禎三戊午式年文科殿試榜目』(개인, 화성 조동점가).

39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閔哲.

40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李熙章.

41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朴宗柱.

안병사 백시구의 후손이다.⁴²

대장의 문벌은 압도적이다. 서춘보는 영의정 서지수의 손자이다. 증조는 좌의정 서명균으로, 대대로 문관 집안이었다. 이석구는 훈련대장 이득제의 아들로, 효령대군의 14대손이다. 이면식은 대대로 무관을 지낸 집안으로 부친 이윤성은 내금위장, 4대조 이창조가 통제사였다.⁴³ 이유수는 충무공 이순신의 7대손으로 부친도 병마절도사, 대대로 무관으로 이어 왔다.⁴⁴ 유상량은 진주 류씨로 대대로 통제사나 병사를 지낸 진주 류씨 무관 별열가이다. 부친과 조부가 모두 통제사를 지냈다.⁴⁵ 조화석은 풍양 조씨로 병마 조집의 아들이다. 유화원은 진주 류씨로 부친 함경도 병사, 조부 증조부 병사를 지낸 무관 별열로, 9대조 유신훈이 문과 관서를 지냈고 그 아들 유용부터 무관을 대대로 지냈다. 백동원은 수원 백씨 무관 집안으로, 생부는 참관을 지낸 문관 백사근이며 부친은 관윤을 지낸 무관 백사은이다.⁴⁶

이처럼 수군절도사 이상을 지낸 인물은 그 가문의 내력을 거의 모두 찾을 수 있을 만큼 선천 내에서도 핵심 별열 가계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조선 정조 대를 대상으로 ‘선천(宣薦)’을 받은 무관들의 관직 진출을 통해 이들의 위상을 가늠해 보았다. 무관 내에서의 선천이 지닌 중

42 『崇禎三癸卯 增廣別試 文武科 殿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 古朝 26-28-63).

43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李勉植.

44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李惟秀.

45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柳相亮.

46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白東蓮.

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들이 다른 무관들과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혹은 관료에서의 위상 차이는 없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부족했다. 더욱이 선천 내에서도 무과에 급제한 이후 선천을 받는 출신천과 무과에 급제하지 않고도 선천을 받았던 남향천 사이의 구체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정조 대를 중심으로 선천의 관직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I 장에서는 정조 대 무관들의 관직 진출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관들은 대체로 ‘① 무관참하관 → ② 무관참상관 → ③ 무관당상관 → ④ 수사 → ⑤ 병사 → ⑥ 대장’의 경로로 관직을 거쳐 왔음을 확인했다. 필자는 조선 정조대의 선천 무관 1,147명을 전수 검토해서 이들 가운데 70.6%가 관직에 진출했고 전체 41.6%가 당상관으로 승진했으며, 수군절도사 이상으로 승진한 경우는 단 9.9%에 그쳤음을 확인했다. 최고위직인 대장까지 갔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즉, 무관들의 관직 경로에서 중요한 기점은 수군절도사였다. 수군절도사로 진출한 이들은 선천 무관 가운데서도 매우 한정적이어서 특권층으로 올라가는 경우였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무관들의 관직 이동은 대부분 조선 후기 법전의 규정에 따르고 있었음도 확인했다.

II 장에서는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무관들의 관료 차이를 분석했다. 우선은 무과 급제자 가운데 선천 무관과 선천을 받지 않은 무관들의 관직 경로를 비교했다. 이어서 선천 내에서는 남향천과 출신천 사이의 차이를 검토했다. 우선, 선천 무관과 비선천 무관의 차이를 보자. 정조 대 무과 급제자는 모두 1만 304명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의 명단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무관 가운데 11%(1,147명)만이 선천을 받았다는 점은 확인된다. 정조 대 무관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조 대 무과방목이 남아 있는 사례 가운데 1783년(정조 7)의 무과를 사례로 분석을 시도했다. 당시 급제한

인원은 146명이었다. 이 가운데 21명이 선천을 받았고 125명은 선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선천인은 95%가 관직에 진출했고, 65%가 당상관 이상에 진출했다. 반면, 비선천인은 53%가 관직에 진출했는데, 단 5.6%만이 당상관 이상에 진출했다. 이는 같은 무과 급제자라도 선천인과 비선천인의 관직 진출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어, 남향천과 출신천의 관로 차이를 비교했다. 정조 대 선천 가운데 남향천은 472명, 출신천은 670명이다. 이들의 관직 진출을 검토한 결과, 출신천은 76%가 관직에 진출했으며, 남향천은 62%가 관직에 진출했다. 출신천의 관직 진출 정도가 조금 더 높았다. 그런데 이들은 관직에 진출한 이후 승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남향천은 관직에 진출한 이들의 68.8%가 당상관에 승진했다. 반면, 출신천은 52.8%만이 당상관에 진출했다. 더욱이 수군절도사 이상으로 승진한 경우는 남향천이 28.4%, 출신천이 5.6%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향천과 출신천이 관직 진출 자체로는 출신천이 유리하지만, 관직에 진출한 이후에는 남향천의 승진이 명확히 우세했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이 무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을 우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주면서도 승진에는 역시 문벌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Ⅲ장에서는 선천 내에서 남향천과 출신천의 승진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이들의 가문적 배경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남향천은 음서로 선천을 받고 관직에 올랐던 만큼 아무래도 가문적 배경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무보』를 중심으로 이를 파악했다. 『무보』 자체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사료는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략적인 추이는 확인할 수 있었다. 『무보』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무반 별열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무보』 등재율은 남향천이 28%, 출신천이 15%로 남향천의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출신천에 비해 남향천에는 별열 출신이 많았음을 알려 준다.

한편, 남향천의 관직 진출이 출신천에 비해 낮았던 이유는 이러했다. 무과에 급제해서 역량이 검증된 출신천에 비해, 남향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무예 실력이 담보되지 않았고 실제로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했다. 즉, 남향천은 우선 선천을 받았어도 역량을 입증받은 다음 관직에 진출했으며, 관직에 진출한 이후에는 가문의 배경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승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정조 대 선천 무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관으로서의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했으며, 이를 갖춘 사람에게만 가문적 배경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兩銓便攷』.

『英祖實錄』.

『武譜』下(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1742).

『武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923.5-M88).

『崇禎三庚申慶科庭試別試文武科殿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6024-60).

『崇禎三癸卯 增廣別試 文武科 殿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 古朝 26-28-63).

『崇禎三戊午式年文武科殿試榜目』(개인, 화성 조동점가).

『王世子冊封慶龍虎榜』(국립중앙도서관, 古朝26-28-65).

2. 논저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5~50쪽.

장필기, 「무보에 대한 자료적 검토」, 『조선후기 무반별죽가문 연구』, 파주: 집문당, 2005.

정혜은, 「조선후기 선친의 운영과 선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현실』 39, 2001, 127~160쪽.

정혜은, 「조선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 《노상추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 2008, 293~323쪽.

정혜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의 진로에 나타난 차별의 문제: 1784년(정조 8) 책봉경과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8, 2012, 39~64쪽.

정혜은, 「조선후기 무관 노상추의 중앙 관직 생활과 그 의미: 오위장과 금군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3, 2019, 193~232쪽.

정혜은,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 무과 급제자 16,643명의 분석 보고서』, 고양: 역사산책, 2020.

정혜은, 『어느 경상도 양반가의 무관 진출기』, 서울: 세창출판사, 2023.

정혜은, 『붓과 칼 사이의 질서: 조선의 무관 제도사』, 고양: 역사산책, 2025.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 정조 대 ‘선천(宣薦)’에 선발된 무관들의 관직 진출 실태와 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승정원일기』를 활용해 정조 연간 선천인 1,147명의 관직 경로를 전수조사하고 ‘무관 참하관-무관 참상관-무관 당상관-수사-병사-대장’으로 구분해 관직 분포와 승진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천인 대다수는 참상관 단계에서 경력이 멈췄으며, 당상관 이상으로 승진한 사례는 41.6%였다. 문과 급제자에 비해 선천들의 당상관 진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선천의 관직 승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군절도사 이상에 오른 사례는 9.9%, 대장에 오른 사례는 1.4%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수군절도사 이상으로의 진출이 매우 중요한 승진의 분기점을 알 수 있다.

선천과 비선천 무과급제자의 관직 진출을 비교한 결과, 선천의 관직 진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당상관 이상의 고위 관료로의 진출에서 선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더 나아가 남향천과 출신천의 관직 진출을 비교한 결과, 출신천이 전체 관직 진출 비율은 높았으나 승진 비율은 남향천이 월등히 높아 선천 내부에서도 명확한 위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지방 출신에 비해 관직 진출과 승진을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서울 출신 남향천과 지방 출신 출신천으로 대별했을 때 차이가 더욱 극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천 내에서도 서울 출신, 특히 남향천 출신의 승진이 매우 유리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가문적 영향이 중요했음을 확인했다. 『무보』 분석을 통해 남향천이 출신천보다 무반 별열 가계 출신의 비율이 훨씬 높았음을 밝혔다. 핵심 요직에 오른 선천 내 남향천의 대다수는 무반 별열 출신이었다. 출신천 중에서도 높은 승진을 보인 이들 역시 무반 별열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남향천 내에서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최소한의 무예 실력을 갖추지 못해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

는 조선이 기본적으로 무예 실력을 바탕으로 무관직을 선발했으나,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가문적 배경 또한 필수적 요건이었음을 보여 준다.

투고일 2025. 6. 30.

심사일 2025. 7. 30.

게재 확정일 2025. 8. 26.

주제어(keywords) 선천(宣薦, seoncheon), 무과(military examination), 무관(military elite), 관직 경로(career advancement), 무반 별열(an elite lineage of military officials), 남향천(namhangcheon; a recommendation received by the virtue of one's family), 출신천(chulsincheon; recommendations of military examination graduates)

Abstract

Paths to Officialdom and Hierarchical Status of Seoncheon Appointees in Late 18th-Century Joseon

Na, Younghu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reer trajectories of military officials appointed through Seoncheon (宣薦) among Mugwa graduates during King Jeongjo's reign, using data on 1,147 appointees from the *Seungjeongwon Ilgi*. By categorizing careers into six stages—junior, intermediate, senior, naval commander, military governor, and general—the analysis revealed that most Seoncheon officials stalled at intermediate ranks, while 41.6% advanced to senior positions. This is a relatively high promotion rate compared with civil exam graduates. However, only 9.9% became naval commanders or higher, and only 1.4% became generals, highlighting naval commanders as a decisive point for advancement.

Comparisons between Seoncheon and non-Seoncheon Mugwa pass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ppointment and promotion rates among Seoncheon officials, particularly among seniors. In addition, Namhangcheon officials from Seoul exhibited much higher promotion rates than provincial Chulshinchon officials, revealing a clear internal hierarchy within Seoncheon. A regional analysis confirmed that Seoul-origin officials had greater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An analysis of mubos (military genealogies) demonstrated that family background was crucial. Namhangcheon appointees included a higher proportion of hereditary military elites, and most key positions were filled by individuals from these prestigious lineag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martial ability was necessary for initial selection, family lineage played a decisive role in further promotion within the late Joseon military bureaucracy.